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금지법'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북한에 대한 굴욕적 행위를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 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발효 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것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은 소위 인권을 앞세우는 여당 국회의원의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와 그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 법이 북한 강경은 국법위헌적의 동생의 이름을 딴 일명 '김여정 하행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김여정이 남측의 전단지 살포를 방해하면서 이를 중재하지 않은 경우 남북 협의를 깨뜨리고 입포를 놓고 개성

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후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표 발의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에서 "북한 존엄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릴 경우 북한이 장사포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그 빌미를 남측이 제공했다고 하는 그들의 억울 주장과 너무나 똑같은 논리가 아닌가.

송의원은 월리스라토로프에서 나서 "보수세력이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 또한 대타(대타) 관철적이고 자의적인 견해라고 판단해 즉각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다.

먼저 "보수세력이 작각" 운운한 것에 대해 착각하는 것은 본인이지 보수세력이 아닌을 발한다.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세력이 북

한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여 세습 독재정권을 이성적이라고 착각할 보수단체는 없다.

"보수세력이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켰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비난하는 발언도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북한정권이 저지른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구의 고모부를 박격포로 쏘 죽이고, 바다에 표류중인 우리 공무원들을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 앞에서 "보수세력이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한다"고 운운하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보수세력을 비방하는 발언은 어찌 할 수 있는가.

또한 북한이 과거에도 대북전단지를 문제 삼아 남측에 장사포로 쓴 사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동안의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모두 다 대북 전단지 때문이었는데, 김여정이라든가 자의적인 예단을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정형하고 책임있는 발언을 하기 바란다.

원로목사총연, 작은교회 회복프로젝트

1천개 작은교회에 방역시스템 제공 목표

한국교회의 원로들이 코로나19로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작은교회 살리기 위해 나섰다. 한국교회 지역 생태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작은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곧 한국교회의 몰락이라는 우려에서다.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대표회장 송영필 목사)는 지난해 12월 16일(수)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코로나19 아웃기회전'을 갖고 한국교회의 성장 불발된 작은교회를 건전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 1,000개의 작은교회에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주와 10만원 기준으로 100여명 한 교회에 자재(자재)와 방역기, 살균기, 소독수, 마스크 등 방역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신남목 목사(원로목사총연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30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던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준다"라며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위기를 넘어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우리의 선전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이다 시 한 번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교회는 우리사회의 골목 곳곳으로 뻗어있는 셋장 같은 존재로 우리 1,000만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원이다"라면서 "작은교회를 살리는 일은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야 할 일이다. 우리 원로들이 먼저 팔을 걷어 붙여주었다. 함께해 달라.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표회장 송영필 목사는 "코로나가 담이 되어 교회 출입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가 담이 되어 교회를 잊게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교회를 구해내고 계신다"고 했다. "코로나는 담이 아니라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담이 아니다. 담이 아니라 짐을 풀어나는 힘이 있다. 코로나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제16회 정기총회 성료, 강용희 목사 대표회장

예총연, 사회와 국민을 위한 치유의 역할을 할 것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사무총장 변정호 목사)이 16회 정기총회를 성료하고, 사회와 국민을 위한 치유의 역할을 할 것 다짐했다. 총회원들은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에 처한 사회와 국민을 향해 예총연이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진하는 예총연이 될 것을 다짐했다.

남윤국 목사(대표회장)의 사회로 드린 이날 예배는 강진명 목사(총회회장)의 기도

사중 유영선 목사의 마 20:1-7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란 제목의 설교로 진행했다.

유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총연에서 일하려면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됐다는 자만을 내리놓아 한다. 우리는 은혜를 다스리는 살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총회 회무처리에는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의 사회로 지난 회기에 대한 주요 사업 및 행사, 행정 보고를 유영선 목사가, 이어 인사위원회(위원장 유영선 목사)가 신 임원 조에 나서,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의 연설과 상임회장 및 각 협의회 회장 등의 임원 연설을 완료했다.

CTS,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택트 특집 생방송

대취타부터 대합창까지! 뜨거운 축제의 무대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주관하며, 서울신학대학교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방송 시간 최초의 비대면 퍼레이드로 지난해 12월 19일(토) 생방송으로 방송된 (2020) 코리아 퍼레이드를 시청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26일부터 31일까지 일곱 번 방송했다. 먼저 26일(토) 오후 5시부터 1-3부 전체 방송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밤 11시에는 1부에서 3부가 각각 나뉘어 방송했다. 그리고 31일 밤 9시 30분에 다시 1-3부 연속으로 방송되었다.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 됨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는 전기철, 최영준 (1, 2부), 최진규, 조창기 씨(3부)가 진행했다. 실시간 편성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 10여 개국의 한지인들과 한인 동포들을 연결하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이번 퍼레이드는 세계적인 대형 퍼포먼스들이 함께 했다. 먼저 조선시대 왕의 행차 시 가장 큰에서 행한 대취타의 행진으로 시작한 무대를 시작으로 2018 광주국제음악제 오코노 무대를 장식한 '저스트싱크', 세계 환경올림픽 금메달 2연의 '하모니', 대한민국의 대표악단인 태권도 시범단 '타이거즈'의 격파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

기자들의 소유자 '소향' 등이 출연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기대하며 위기 때마다 더욱 하나 되어온 대한민국을 기억하려 한다. 특히 IMF의 어려움,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복구해왔던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강릉도 산불과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며 도우며 위로해왔다.

(2020) 코리아 퍼레이드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힘을 이어가며, 특히 임재환씨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우 애국지사(1905)의 명상 필담으로 국민들을 응원했다.

나사렛대, '쿨 칼리지 제1기 수료식'

자율전공선택 계열 1년 과정

나사렛대학교총장 강경수는 지난해 12월 14일(월) 오후 5시 경진관 대강당에서 자율전공선택제 1년 과정 수료식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수 총장, 강경희 교수장장을 비롯한 콜칼리지 소속지도교수,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사렛대학교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남권 최초 자율전공선택 계열로 학생을 선발하여 4학사선 융·복합 교육을 위해 전공 간 벽을 허물고, 2학년 진급 시 학생들

이 원하는 전공을 100%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했다. 자율전공선택제별로 입학한 학생들은 1년간 '쿨 칼리지'에 소속되어 전공선택에 필요한 스터디그룹과 융복합디자인 스터디, 프로젝트 스터디, 스터디그룹 스터디 및 세미나 스터디 등 전공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민성 학생총장(쿨칼리지 1년은 헤기치 못 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활동을 했을텐데, 아쉽다"며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 한 1년은 내 적성과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콜칼리지 제1기 수료한 학생들은 2학년 부하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소속된다.



세기총 · 서명운동본부-전기총, MOU 맺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 적극 나선다

(사)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배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와 세기총) 등에는 ·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전만인서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지난해 12월 18일(금)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북기독교총연합회(회장 황철규 목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황철규 목사(세종교회), 전계원 목사(예성합동 중경총회장 목사)와 함께한 김재구 목사(충주세종교회), 김성기 목사(성주세종교회)가, △동상에 ·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전만인서명운동본부에서는 본부장 김희선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사

무국장 최정수 목사가 참석해 상호 보류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인사에 나선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황철규 목사는 "오늘 업무협약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에 의미가 깊다"라며 "적극 협력해서 함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앞장설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사랑밭-원팩, MOU 체결

도움의 손길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 지원

(사)함께하는사랑밭과 (주)원팩이 지난해 12월 21일(금)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원팩 임직원 대표와 함께하는 사랑밭 국내사업부 부장직이 참석한 가운데 원팩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아동센터와 그들을 돕기 위해 · 지원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정기적인 지원으로 소외계층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원팩은 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 통해 소외계층의 삶을 더 가까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팩 임직원 대표는 "함께하는사랑밭과 의미있는 협업을 맺게 되어 영광이다. 지역 사회공헌 실현을 위해 특히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설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 상임이사 권대일 박사는 "코로나19로 더 한겨울 나날을 보내는 소외계층을 위한 원팩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진정성 있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협약 체결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여 명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11일(금) '불꽃' 지역, 서울에서 한겨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92년부터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과 소식을 제공해온 (사)사랑 좋은 친구들(이사장 신석훈)과 한국교회 섬김운동본부(이하 한국교회)가 함께했다.

한국교회는 2003년부터 17년 동안 그동안 사랑 좋은 친구들(이사장 신석훈)과 한국교회 섬김운동본부(이사장 신석훈)가 함께했다. 이들은 나눔이 행복만 사랑만, 행복복을 행복만 나눔이 빛도 없이 봉사해왔다.

10년 이상 매년 500여 명의 노숙인들을 섬겨온 이들이, 코로나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섬김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근대문화진흥원 이효상 원장, 한국NGO신문 김승중 대표, 한국국교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인 12년 섬겨온 김명일 목사(성광교회) 등 주요 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자원봉사자로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이효상 원장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가 기도와 김승중 대표가 인사 후 폐식에 나섰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늘어난 출을 강조하며, 식이 앞서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50명 미만으로 나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었다.

“2020년 제12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교회폐쇄법,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신앙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지난해 12월 17일(목) 오전 7시 신장면에 소재한 보배로교회(회장 원원 목사, 본회 부회장)에서 2020년 제12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나라의 위기를 맞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헌신해 준 임·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약발인 교회폐쇄법,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사해에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1부 예배에는 사무총장 진원학 목사, 회교도 김소영 감독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시 6: 1-10 말씀을 본문으로 “절령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유럽에서는 7,500만-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역사상 최악의 질병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날 현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기독교의 모인 자체를 억제하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오늘 본문은 디윗의 회개의 시로, 다양한 대적들로 부터 신랄한 조소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랄만 한 회개의 몸부림이 있고서야 비로소 사회의 혁신을 가져다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 시대에 불빛의 기도를 더하며 모여서 기도해 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

회교도 김소영 감독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시 6: 1-10 말씀을 본문으로 “절령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유럽에서는 7,500만-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역사상 최악의 질병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날 현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기독교의 모인 자체를 억제하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오늘 본문은 디윗의 회개의 시로, 다양한 대적들로 부터 신랄한 조소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랄만 한 회개의 몸부림이 있고서야 비로소 사회의 혁신을 가져다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 시대에 불빛의 기도를 더하며 모여서 기도해 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



에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장 홍성용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2부 보고회 및 공시사항 순서로 조이철 목사(삼일회)의 사회로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의 국정 현안과 지역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아산

사기독교연합회 인심 사무총장 박성환 목사의 인사와 연합회 행사의 협조 아산시의회의 협안내용을 보고했다. 이어서 바른인원연합회와 충남기독교연합회 중점 사항을 보고한 박성환 목사가 전말했다. 장 목사는 교회폐쇄법과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국

선언을 아산시가지 먼저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자고 했다. 3부 기도회로 임원직 목사(삼일회)와 인도로 주자(삼일회)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장할 목사(삼일회), 2) 중구(삼일회)로 인도로 주자(삼일회)를 위해 국민(삼일회)과 동성애(삼일회)를 위해 세영(삼일회), 3) 아가리 부흥과 연합회를 위해 온전(삼일회), 4) 국가 안보와 나라(삼일회)를 위해 황기(삼일회) 장, 5)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동성애(삼일회)를 위해 세영(삼일회), 6) 민족복음화를 위해 박성환 목사(삼일회)의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사무총장 진원학 목사의 광고 후 기념촬영이 있던 후 보배로교회에서 교로 나옴으로 인해 조찬을 도시적으로 준비하여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주찬미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해 12월 13일(주일) 순복음주찬미교회(원인 윤해영 목사)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종화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사회로 안병선 목사(순

복음장성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황원선 목사(순복음복음교회)의 성령강림,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김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출 1: 15-22 말씀을 본문으로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직 받는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회에 먼저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수위원장에 유봉수 목사, 안수위원에 최정진 목사, 정영진 목사, 박영우 목사, 조종화 목사가 나선 가운데 최인순, 이

호준 장로와 박한이 안수집사, 고영희, 김요순, 권선애, 엄경애 권사 임직식이 이어졌다. 안수위원의 안수와 임직매 수여 및 축사말씀을 마치고, 부회장 박영우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축사 및 권사, 담임목사 윤해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광고와 인사 후 중경회장 유봉수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이후 기념 사진촬영과 식사대접으로 은혜가운데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방역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는 상태입니다.

대전기독교연합회 성명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성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는 다문화인구 증가와 이념의 양극화,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지난 7월 20일 이성민 의원은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와 연합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성민 의원에 대해 일련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교회의 뜻을 담아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의 발의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교회가 이성민 의원의 면담을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합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전제하여 경각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대외로 여론을 환류하려는 교회의 의도로 여겨지기에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동일한 발의를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든지,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의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든지, 모두 역차별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과잉법률의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뜻을 전명한다.

첫째, 이성민 의원의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기조가 큰

문제가 있다.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개별 법률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결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배반의 자질을 목적으로 하기 반대한다.

둘째, 이성민 의원의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회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언론의 자체조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한다.

셋째, 이성민 의원의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은 남자와 여자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한 번 제3차양성평등을 반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국민평등기본법,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초헌법적 발의라고 반대한다.

넷째, 이성민 의원의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은 ‘간접차별’과 ‘괴물법’과 같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제재를 기함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억압한다. 이는 소수자의 평등과 인권을 내세워 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평등법안이라고 반대한다.

다섯째, 이성민 의원의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찬양함으로써 자녀들의 가치관

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정의 구조를 파괴한다. 또한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길을 차단하기 반대한다.

여섯째, 이성민 의원의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과 자립단체는 차별이 다른 부수불위의 범주에 차별 시정의 최상위 사정기안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게 되어 반대한다.

일곱째,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국소수인권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까지 개정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비탄한다. 이것은 소수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려는 위정당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헌정적 균형을 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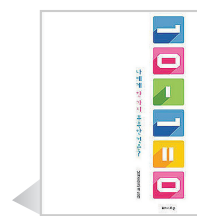
3. 이에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는 이성민 의원에 대해 위정당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67개 교회와 간접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위정당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성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시 유성구와 전국의 유망자들이 거센 대의를 결집하여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 운동에 펼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0. 12. 16.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일동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새번개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회복, 풍요성으로 인해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태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활달하지 않고 나날이 되게, 나날이 되게 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 죄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한 행을 자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그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수용 목사)에서는 군 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매달라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행태로 변화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주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수용 목사 (010-9720-1603)

담임목사 청빙 공고

남원중앙교회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직속 지방회 소속으로 창립 68주년 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섬겨오신 담임목사님의 사임에 따라 소명의식이 뚜렷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담임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 1) 연령: 만40세 이상~52세 이하(생년월일 1969. 1. 1. ~ 1968. 12. 31.)
- 2) 학력: 하나님의성회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 3) 경력: 하나님의성회 교단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재임임 또는 부목사
- 4) 기타: 대한민국 국적의 기혼자로 교단법과 사법에 무효한 자

2. 전형방법

- 제출된 서류와 동영상을 통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추후 초청 설교를 통하여 최종결정
- 초청 설교와 관련하여 시간과 방법은 개별통지함.

3. 제출서류

- 지원서 경력사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본인)과 배우자: 성장배경, 가족사항, 신앙관, 목회경험장점사항과 은사 및 약한부분 포함 등
- 목회계획서(목회 동기 및 철학, 비전, 교회운영계획,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계획, 바람직한 교회상 등)
- 설교 동영상: 지정설교(마태복음 13:1-9절 말씀), 자유설교 각 1편, 제한시간 30분 이내(저장매체USB), 설교원고 출력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목사안수 증명서 및 교단 소속증명서
- 하나님의성회 총회 신학대학원 학위(졸업) 증명서

- 건강진단서(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지정병원 발행)
- 현재 시무교회 재직증명서 및 최근 4주간 주보
- 성범죄 및 범죄(아동학대 포함) 전직 조회 동의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 그대로 사용

4. 제출기한

2021년 1월 15일(금)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5. 제출처

(55771)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85(죽림동) 남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회

6. 참고사항

- 1)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제출(결연에 '청빙서류 재증 표기')
- 제출서류는 기금적 한도 표기(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2) 모든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빙 결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연락처 : 남원중앙교회 청빙위원회(010-5566-6022, 010-9966-2071)
- * 교회 홈페이지 http://www.nwcc.co.kr

남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 고문** 정연학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시장), 아산교목장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
공동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지도위원 최규명 목사, 노선운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부회장 박차영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사무총장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상임총무 이광로 목사, 서석용 목사, 장현원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광익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후원회 회장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후원회 안홍규 목사, 이기연 목사, 박성화 목사
총무 최순식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광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후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재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광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현 목사
후원회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환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후원회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후원회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철 장로, 박종탁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배농성물집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알레르기성 질환, 항염, 항암예방(천연대연구논문)
-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2)콜리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천연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천연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천연대연구논문)

3)타식폴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 1)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1) 면역력 증가

6)칼슘

- 1) 연골의 24배, 뼈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7)비타민

- 1)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8)식이섬유

- 1)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9)비타민C

- 1) (비타민C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10)기타성분

- 1)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 아미노산,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종괴, 암 부위에 미세처럼 천년초를 찔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랑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랑**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1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문의

교단공과 신청

출판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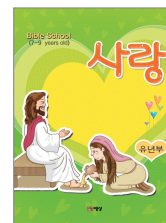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동원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진화론의 문제점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회장 이광원 장로)

고등학교용 ‘지구과학 I’ 교과서 개정 청원 “동일 과정설에 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동일 과정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오류로 판명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
진화론의 한 부분인 ‘동일 과정설’에 대한 수정 청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교진추는 12월 24일(목)에 오전 연대식 및 지적학적 진화론의 한 부분인 ‘동일 과정설’에 대한 수정 청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원서서 제목: “동일 과정설에 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1. 동일과정설에 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출처: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그림 2. 카치호스칸의 차린 협곡(Chayn Canyon)의 암석상



[출처: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사)교진추, 회장 이광원)는 12월 24일(목)에 “동일 과정설에 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현행 ‘지구과학 I’ 교과서(가) 발행사에

기술되어 있는 동일 과정설에 관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동일 과정의 발전·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면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다는 법칙이다.”

과연,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처럼 ‘동일 과정설’을 발전이나 원리로 명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술 내용과 방식으로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은 동일 과정설을 마치 오류가 없는 과학적 발전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과학교육의 목적은 과학지식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식 역량의 증진과 합리적이고 정의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력의 배양 및 과학적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술되어야 하기에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 과정설(同過程說)은 오늘날 다양한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선험적 가정으로서 현행 ‘지구과학 I’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오류로 판명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 과학’의 학습 요소로 ‘동일 과정설’로 재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동일 과정의 발전’ 또는 원리는 부지불러 함의 용어를 오용하고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교진추는 과학 기술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저서로 과학 영역인 진화론과 동일 과정설 등과 같은 가설의 과학적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증명된 발전처럼 기술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교과서 청원을 통해 교육부와 기존 학계가 여러 차례 교과서 내의 진화론 기술 오류 개정 청원을 하고 있다.

(사)교진추가 지구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동일 과정설’에 대해 청원하면서 “지질학적 진화론의 한 부분인 동일 과정설 지지자들도 본회 청원서의 주장

논리와 근거 논문을 살펴보면 본회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교진추는 청원의 배경으로서 ‘동일 과정설’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계속 잘못된 기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와 내용 및 기술 방식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과학적 사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을 기르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동일 과정설의 용어와 오류로 판명된 내용을 수정하고, 단편적인 기술 방식을 지양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정의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客觀的)이나 신중(審判的)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술해 주기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구과학 I’ 교과서 내 ‘동일 과정설’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삭제해줄 것과 그것이 어렵다면, 청원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교진추가 청원의 근거로 내세운 학문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일 과정설은 제임스 허턴(James Hutton, 1726-1797)이 조금 더 폭넓게 주장한 이후 라이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들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오류로 판명된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로, 동일 과정설은 후진 공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학습 요소에서도 ‘동일과정설’로 재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이 발전이라는 용어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오용하고 있다.

셋째로, 동일 과정설은 이미 오늘날 관찰할 수 있는 지역적인 지질 현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거나, 전 지구적인 지질 기록과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지질학적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 문제점과 한계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

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행 교과서들은 기술하고 있지 않다.

넷째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학습 요소로 ‘객관적’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외 지구과학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동일 과정설의 한계성과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지구 역사에 대해 통합적 관점으로 재기된 객관적이나 신중(審判的)에 대해 현행 교과서에서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로, 현행 교과서들은 오늘날 형성되고 있지 않거나 전 지구적인 규모와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질 기록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질 기록에 대해 서로 다른 가설들에, 동일 과정설 대 (신)객관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사)교진추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주요 학문적인 근거와 함께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속 조건의 수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어떤 패턴이나 또는 사나이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따라서 해석이 달란 수월해 없다. 그다지고 고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패턴이나 모범 등에 따른 해석의 차이, 그리고 가설 및 역사 과학 영역에 대한 ‘자연주의적 철학’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

다. 왜냐하면 패배적인 과학적 관점이 자연주의적 철학을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관찰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시정할 때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함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미래를 밝히는 학생들에게 게아려한 교과서 개정을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교과서의 자신들과 과학 영역의 내용을 마치 검증된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오류를 학문적 논의를 통해 계속 해서 시정되도록 청원할 것이다.”라는 것으로의 임지도 표명했다.

(사)교진추는 이번 제2차 청원에 이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지식학의 발전’ (이것은 마찬가지로 발전이라고 불릴 수 없음) 중 진화론에 바탕을 둔 ‘동물군 또는 생물군 전이설’에 대한 다음 청원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마치 고전과학적으로 불발의 사실처럼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가설 또는 역사 과학과 관련된 가설 내용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내고 이 땅의 교과서가 빠르게 바뀌도록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청원서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교진추의 홈페이지(<http://struck.kr>)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간 안내

책 읽는 사자의 신앙의 참견

청년의 3대 현상인 고민, 불안, 걱정'에 대한 성경적 통찰과 실재적 조언. 스스로를 '책 읽는 사자'라고 소개하는 저자 책 읽는 사자는 네이비 포스트 48만 구독자의 포스트 에디터이다. 그의 영감을 기다리는 10만이 넘는 구독자들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그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세상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초교회수 6600(2020년 12월 기준)이 넘는 그의 영상을 통해 신앙과 세상 가치 사이에서 흔들리며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적 가치관과 신앙대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영성으로 다 풀이하지 못한 이야기와 저자가 실제로 청년들에게서 받은 수많은 이메일과 댓글 내용을 참고로 그들의 은밀한 고민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담겼다.

저자 : 책 읽는 사자 | 출판사 : 규장각

발행일 : 2020-12-21 (140*210mm 296p) | 판매가 : 15,000원

부전 자전 고전



아바지와 아들이 편지로 주고받은 신학과 철학의 사유, 세대 간의 단절이 깊은 시대에 아바지와 아들이 책을 읽고 말을 건다. 그것은 편지라는 형식으로 종교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된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아바지 김경환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 김희현의 동상한 고전 가운데 스무 권을 선정하여 '현제, 타자, 폭력, 국가, 정의, 사랑, 진리, 자유, 세상, 학문'과 같은 신학 철학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지상(地上) 이론을 펼친다. 첫 책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펼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한 뒤 칼 바르트의 《교파서》를 통해 '타자'를 들여다본다.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는 에릭슨을 벗어난 교단인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토마스 홉스의 《레비아탄》을 등장시킨다.

저자 : 아바지 김경환 | 출판사 : 규장각

발행일 : 2020-11-27 | (140*215mm 312p) | 판매가 : 16,000원

보다 예배다운 예배를 꿈꾸다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 하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시간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의 현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예배 모임이 지금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격정적이나 비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지금의 시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예배는 왜 예배의 경건이라는 거룩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예배는 왜 예배의 경건이라는 거룩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저자 : 양영호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11-30 | (148*210mm 200p) | 판매가 : 12,000원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



하나님의 자리는 유일하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를 얻어온다. 성경의 인본에서 인간 역사를 재해석하고 비본교이었던 참된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본래의 빛을 쏘아낸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얻게 된다. 성경이 그 약속을 잃지 않고 그 종말에는 주님이 삼위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만민에게 진정하기를 보시시(마 5:39).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진리를 본받고, 이성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인본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다.

저자 : 김재성 | 출판사 : 서울북스

발행일 : 2020-12-20 | (115*225mm 612p) | 판매가 : 32,000원

긴급진단

이은경 변호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⑥

5. 전담기관 일원화의 문제 - 무소불위의 '인권위'

현행 차별금지 법률이, 장애인에 보충(복지부, 노동청, 고용노동부, 남성과 여성은 여성가족부, 외국인은 법무부 등 차별영역 및 대상별로 관장부서를 달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인권위'는 모든 차별을 판단하는 권한을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이를 모든 국가기관 위에 두고 있다. 실상 '인권위'의 직역과 대 권한관계를 도해하는 셈이다. 지금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는 '인권위' 결정에도 정부기관들은 국도로 몸을 사린다. '인권위' 비서관위원 취임 당시, 심지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지 않기 위해 국가기관이 시정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진정당한 공무원들 장제부터 해버리는 사례도 종종 보았다. 차제에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의 전 생활영역에 미치는 각종 사회 분쟁에도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 이렇듯 권고를 뛰어넘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통령보다도 강력해진다.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 말이다.

6. 결론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의 기반을 만들라는 사회의 요구를 누구든 거부했는가. 입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차별관행을 기거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엔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한다. 그런데, 당장 정부부터 들어서 차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발상은 분명 부

작용이 크고, 역차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지능적 지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천국의 만들 수 없다는 법칙이 말이다. 법률을 제정해 모든 차별분류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척 단순한 환상이다. 오히려,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무조건 규제부터 강행하려는 '입법 과정'을 경계해야 한다. 실정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공론화과 장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방정신에 변한 것이지, 상 위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또 예민한 어떻게 확보하고, 사회적 파장은 어떤지 간지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법'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정의당'과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이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법'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할 법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그 이름대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부터 평등해진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개별적 권리들로 로마 전이 법전 공생체 모든 관계들마다 낯선 칼이 갈라져 주기 때문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 주장에만 급급한 '민인의 민에 대한 무정부'로 전락해도 좋단 말인가. '정의당'과 '인권위'로 모두 독소조항이 사법부에 넘겨졌는데 차별을 없애고 나 몰고와 환호할 법한, 법원의 구체적인 실상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요사이 법의 제정과 개정이 지나치게 '감정적', '무정적'이다. 민주주의

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 중요 이슈의 합의까지 반드시 속가 필요하다. 그런데, 법이란 형식만 갖추어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그 어떤 것도 행해지는 세상인 듯 보이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차리니, 법 이전에 '차별'에 관한 도덕적 논의부터 활발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 나쁜데 공중의 도덕이 좋은 나라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이 병들어 버린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법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 삶에서 사건건 개입할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복잡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 법률에 의해 개인의 이기심이나 차별 같은 권력욕을 제 거해버렸다는 취지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 법률은 그것이 약속했던 일을 오히려 더 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확립시킨 '차별시정'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개인의 인권을 억누를 위기에 직면했다. 사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를 더하여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평등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가 없이 완전에 걸려있는 상태다. 유권자들의 진언하고 서로 깊은 논의 위에 끊임없는 검토를 더하여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평등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가 없이 완전에 걸려있는 상태다. 유권자들의 진언하고 서로 깊은 논의 위에 끊임없는 검토를 더하여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의 시
만들의 고백

주혜영 사모 // 서안순복음교회

영원한 선물

아주 특별한 사랑이야기	2020 성탄의 기록한 이야기
그 큰 사랑의 기부감	구유에 오신 그 분은
여중의 반민과 고뇌	온 세상 영혼을 살리는
고통과 아픔	영원한 선물
미련 없는 버림의 이야기	영원한 선물의 승리 이야기
비천함을 내놓다	위장된 거짓 선물
공허한 빈 그릇	드라나 부정사기
더 내려앉음	악의 뿌리 멸종되다

이득한 시간 속에 이야기	이로문 승자의 행복 이야기
길고긴 인생의 경지	자유 평화 기쁨 복된
미세한 순환과	영광 가득한 불멸의
짧은 고난의 경점	영원한 선물

가대되는 새로움의 이야기	3121216
그 사랑 앞에 선 단독자	마리아의 신의고백과 예수님나눔을 통하여
최상의 경배로	마1:18-2:11, 눅1:26-38, 2:8-14
황금 유방 몰락	

예장보수통합 2020년 졸업식

신학 제36회, 신학연구원 제35회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통합)총회(총회장 장영송 목사) 총회신학(학장 장영송 목사)은 지난해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 소재 광명교회에서 2020년도 졸업식(신학 제36회, 신학연구원 제35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을 배출했다.

졸업식 예식은 박희남 교수 사회로 이명자 교수의 기도, 교단 수석부총회장 최정순 목사의 축 17:48-18: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모세가 승리한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와

최 목사는 '발굽과 기도의 전진감'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선에서 싸우라'라고 강조하고,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들로서 주의 말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달

라"라고 당부했다.

졸업식은 계속해 학장 장영송 목사가 신학생들에게 졸업증서를 신학연구원 원장 정성선 목사가 연구원생들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 후 총동무회장 한복순 목사에게 기하배를 수여했다.

학장 장영송 목사는 헌사를 통해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다. 항상 기도와 철저한 말씀연구를 통해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일꾼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예장보수통합 제36회 연구원 졸업식에서 문미자·윤선희·임근숙·고영주·이혜미·최아슬씨 학우가, 신학부에서는 윤노람·김정섭 학우가 각각 졸업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을 세트로 전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족세트전도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는 것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셨듯이 이 가족세트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그야말로 가족이 세트로 구원 받는 은혜의 전도입니다.

케냐에 이만 간 저희 언니는 코로나가 없던 작년 10월 오만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2주 가족세트전도"를 훈련 중이어서 언니를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니! 난 천국에 못 가! 난 지구에 갈 거야. 교회 안 나 간지도 하도 오래 되어서..." 신앙생활을 멈추었던 언니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가족세트전도, 1분 전도를 하자!'는 생각이 떠올라 서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강박하고 돌같이 굳은 언니가 제가 하는 영적기도를 큰소리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지평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언니는 케냐로 돌아가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다가 올해 10월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천정언니가 살아 있을 때 자주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도 못하여 기쁘게 해 주지 못한 여러 후회와 슬픔이 있었지만 마지막 언니 얼굴을 직접 보며서 가족세트전도, 1분 전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드립니다.

가족세트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족들을 모두 영혼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로 지금 이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가족세트전도 홍보대사 이태교교회 박미리 권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민주주의 짓밟은 '대북전단금지법' 비난

대영호·지성호 의원, 현재 앞서 기자회견

북한인 출신으로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인 국민회의 대영호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화) 한림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명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40여 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29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영호 의원은 "한 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결심을 갖고 대한민국에 온 제가 오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한자 앞에 서 있다"며 "오늘 대북전단 금지법이 끝내 공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황에 따라, 나라에 따라 기준과 편위가 변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간섭으로 받아치는 것은 북한이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북한에 정권이 있다면 주민들도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크리스마스 자체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지구상에 그런 아픔을 받고 통제를 받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렇게 처참하게 짓밟혔는가. 어떻게 (북한) 김여정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었나"라며 "민주주의를 이겼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담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한변 회장 김태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림재판소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유준상, 'In Africa' 발매

노래를 통한 경이로운 희망의 빛 전해

월드비전 홍보대사이자 드라마 '영이로운 소문'에서 크리스마스를 역할로 안병 극장을 사로잡는 배우 유준상이 이번에는 음원 앨범을 통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영향력을 펼친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배우 유준상의 스페셜 앨범 'In Africa' 발매소식을 전하며 앨범 판매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지역 보건·사회

스 개선에 나간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홍보대사 유준상은 2012년 이후, 지난 2015년과 2017년 아프리카 우간다와 말리위에 방한해 보건·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삶을 마주한 뒤 국내에 열악한 상황에 놓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희망을 위해 나눔 메시지를 전파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토) 발매한 스페셜 앨범 'In

Africa'는 당시 유준상의 아프리카 현장 방문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앨범이다.

유준상이 직접 작사·작곡·기창한 타이틀곡 '아름다운 선물'을 비롯해 'Let's Notbe', 'Δ년 그곳의 소년', '소년, 난 이곳의 친구 Δ있어' 등이 있기에 또 생각나는 것들 등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11곡으로 구성됐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마네칼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살균 5.편도 보호 6.갑각예방 7.혀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침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수가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자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보혈로 덮으시니...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
선택되니 그때부터 귀한 재료 되었구나
증거궤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혀지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품고 사는 거룩한 증거궤가 되었도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보잘 것 없는 나
정금보다 귀한 보혈로 덮으시니
언약궤보다 더 귀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 보내 주사 거듭난 생령..
새 생명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도다

증거궤 위의 속죄소 두 그룹사이
'거기서 내가 나와 만나겠다' 하신 것처럼
성령님 내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일을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렇듯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이 글을 적는다
구역 전사님들과 출애굽기 25장 10절을 읽다
쓰고 싶은 충동에 인도가 아닌 나다
이것은 내 욕망인가? 성령님의 역사인가?

한교봉과 한교총, 쪽방촌 찾아 성탄절 사랑 나누

두루마리 휴지와 김 세트 성탄 선물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과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교총)이 성탄절을 맞아 지난해 12월 2일(월) 서
울 용산구 동자동을 찾아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
원에서 동자동 성탄교회 앞 거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400여 명의 쪽방촌 주민들에게 성탄 카
드 스티커가 부착된 두루마리 휴지와 김 세트 800
여 개를 성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정성진 한교봉 이사장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
록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다"고 말했다.

신병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함께 찾아주는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
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봉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성탄절, 설날, 추석 등



명절마다 꾸준한 쪽방촌을 찾아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한편, 22일(화)에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의 주민사별방을 찾아 김 세트 100개를 성탄 선물
로 전달했다.

사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2020년 세계 전란한 대양은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지 않다. 해를 넘겨가면서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는지 자기들만의 리스크 위
해 대진하는 이들은 대통령에게 외풍이 없도록 하고 대
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오직 한길만 가라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환관 조교가 저지른 '지옥위
마'의 고사가 있다. 시신을 받아내고 우간다. 시신 퍼
린 환관 조교가 무서워 받아내고 동조를 한다. 시신
이라고 사실대로 말한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씌워
모조리 처형한다. 그대사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정치, 상식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
괴하는 정치가 판을 치고 있지만 누구도 대놓고 사
심을 사심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심을 받아내고 한
조교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말이
지 않는다.

정작은 선악(善惡)이 공존하는 편이다. 그러나 검
시는 선악(善惡)만 보면 되는 것이다. 이 길을 따라나
서 정적(靜寂)과 동적(動靜)이 공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 개혁이란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 보인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검사의 본
연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물며 당시 법
무장관 기르르너처럼 총통의 의지가 곧 법이란 것이
를 모르는 사람은 판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의 검찰 개혁이 있다. 법치를 논쟁만으로 만
들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말한다. 법치를 무시하면
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정
권이 순조로라는 말이다. 열렬 지지자들만 보인다. 누
구에게도 법으로 보장된 3년 검찰총장 해임권한은 없
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임명권(任命權)만 있지
임면권(任免權)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라마다 갈등 속에 빠져 있다. 러시아는
푸틴 퇴임 후에는 아무것도 수치를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퇴임 후의 일들이 그날에도 격정이 되면
에 대통령에 되었을 때라는 의문이 난다. 아니면 대
통령 때 잘하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립을
시켜 자기 편대로 권력을 누리려는 퇴임자들이 훗
날이 걱정 되어서 온갖 풍습을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

고 있다.
세종대왕은 취임 일성이 '우리 토론회'였는데,
우리는 토론회를 하면 상대를 박살내는 것으로 알고 나
중에는 싸움을 하고 끝까지 일이다. 말전할 수가 없는
일이다. 유대인의 신에 대한 공의하고 만장일치는 무효
로 했다. 미국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
터 드러커도 만장일치는 좋은 게 아니라면서 만장일치
가 나오면 회의를 다시 한다고 했다. 만장일치 때는 결
정을 미루라는 말이다. 과연 미국이다.

공수처법 통과 때도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
치 찬성을 했다. 로보트 아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그대놓고 통과가 되자 서로를 바라보며 만
족한 웃음을 띠면서 박수를 쳤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적인 절차다. 절차
를 무시하면 모두가 다 무효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법
치주의다. 그런데 총장을 찍어내려고 절차를 다 무시
하고 무리수를 둔다. 총장을 찍어내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라는 악마의
바람이 불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다.
정작에는 광란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지금처럼 서로 편을 가르고 분란을 일으키고 위선
과 거짓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돌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완전한 사람을 살리고 정직한 자
를 복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 '완전한 자의 길은 평안이다' (시
37:37)

지금만 막아보고 거짓말 같은 일이 하나님을 의지
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현실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
광이 우리 민족과 항상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
늘 공중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시서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주는 기
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하
를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아람과 요셉의
자손을 수렁에서 구하셨나이다" (시 77:14,15)

모든 민족과 세계에 마지막 분단국인 남북이 평
화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람과 요셉의 자손을 구출
하듯 이 민족을 구출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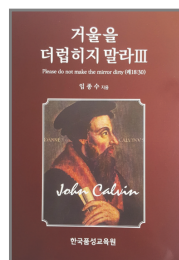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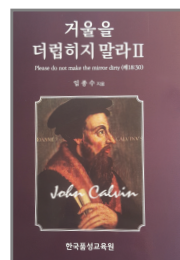
● 편집 고문: 정책위원회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사이트: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번만 강조하
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
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를

책 구입처

cs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경,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
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
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러야 할 세력들 즉 집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성명서

교회폐쇄법과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산시 목회자와 성도대표들의 시국선언

적극의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라지고 정치특재만 존재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이 무너졌으며, 헌법재판소도 경찰도 감청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는 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온 국민이 일어나 저항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심정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의 주요 관심사인 교회 폐쇄법과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산시 목회자들과 뜻을 함께한 성도님들 대표들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악한 법과 정책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상해안사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20대에 왕정 대신 민주주의를 꿈꾸다가 반역자로 옥고를 치루던 1904년, 갇혀 있던 국가비전을 담은 '독립장'이란 책을 작성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장'에서 국가를 의미하는 한자 '國'과 '家'를 '나라집'이라고 해설했습니다. 국가는 왕과 같은 개인이나 소수 지배층의 소유물이 아니며 모든 국민의 집이 된 혁명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족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마음가짐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0년 1월 26일, 국민들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청와대 청원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했고, 중국인 유학생을 입국을 취소 대우하듯 했습니다. 심지어 국내의 마스크 등의 방역물자를 중국으로 반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기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곧 이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수백명의 국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월 26일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대만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비교가 됩니다.

대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대만 보건당국은 논문을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역당국은 수백 명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무너져 경제난을 당해 아무도 모르게 자살하는 와중에 K방역이 모범이라고 자랑하는 데 예념이 없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2월 1일, 대한 총통은 발상하더라도 국민들 간에 상호 비난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국민은 피해자가 아니며, 그런데, 방역실패의 책임자인 정부는 사과는 커녕, 그들의 태만으로 감염된 피해자인 국민을 비난하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니, 대만의 정치인들의 태도와 비교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과 국회의원들을 가자라고 한다면 집안은 제대로 돌보지 않아 초토화 되게 하면서 되려 차자들을 두들겨 때는 때론적인 가정이다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에 상호비방하게 하여 다투게 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교회 폐쇄법'이라고 비판을 듣는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의 개정안을 할 라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

인들에게는 생명의 행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인원을 제한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식단은 랜잡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백화점과 전철은 랜잡는데, 왜 유독 교회는 똑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데 인원을 제한하니까? 이는 헌법의 정교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의 종교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일반사실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 교회는 50명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며 금지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과 다른 시설에 비교할 때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감염자에서 예배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되었으며, 삼각관계에 서는 그러한 사실도 허위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세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 사교회를 코로나 근원지인 양, 목적으로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명에서 방역을 벌이로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는 부름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단계에서 운동을 할 경우, 그리고 감염되어 격리해야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시설을 폐쇄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있지만, 장병이나 보복 목적의 시설폐쇄 조치는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행정명령을 남발하였습니다. 가정에 대화가 아닌, 명령을 남발하는 가정이 구성원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몇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걸쳐 논의가 되어 왔고, 참여당론가 연영리민등가 비정규직리등가 국민들이 공과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명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보충대응은 국민들의 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포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다가 2003년에야 민간 분야에 합법화 했고, 1953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동성애자의 공무원 채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만든 주들이 있지만, 미국의 연방 차원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성애를 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동성애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즉,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만일 구제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동성애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우상화 하는 정치세력과 인권침해는 국회는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 개념을 추종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서구 반기독교적 좌파가 만든 사회

문화와 정치 문화를 모방하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많은 내용들은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주권을 박탈하고, 외국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내용들도 있는데, 중국인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하려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시국에 참으로 위험한 법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께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차별로 몰아 인권침해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범법행위로 보는 이 법은 동성애독자법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반대의 일을 막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 법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건강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게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만일 그러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추진한 정당에 대한 주권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도 득이 될 수 없음을 유럽의 사회주의 시민주의 정당의 몰락으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형법개정안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대만은 중국인입국금지조항이 없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의 위해는 우리의 국민이다.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자 금지하는 국민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범죄적 주권을 국민으로 대한 행위에 문제가 사죄하라!

하나, 감염병예방법 개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역을 벌이로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 법안들은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탄압 교묘한입니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시켜라!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범법으로 몰아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독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하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제정할 수 없어서 득이든 사죄하든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제정하든 동성애독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혼란으로 온 국민의 도덕과 윤리를 파탄에 빠뜨리려는 음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다. 헌법을 훼손하고 성경에 반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한다!

이상으로, 시국선언을 마칩니다.

2020년 12월 17일 08시

아산시민족목회총동원본부(대표회장 정동용 목사) 외 아산시 400교회 일동
아산시기독인회합회본부(위원장 최기식 목사) 외 아산시 400교회 일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한 명 점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배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최 정 식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배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오 일 선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배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김 상 웅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배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빌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